



알지만 광활한 잡지식의 세계 <이강민의 잡지사>

글. 장한별 CBS 제작기술부 엔지니어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달은 왜 자꾸 날 따라와요? 연필은 왜 육각형이에요? 숫자는 10까지 세면서 시간은 왜 12까지 세는 거예요? 그럼, 분하고 초는 왜 60까지 세요? 나비랑 나방은 뭐가 다른 거예요?

명절에 친척 조카들을 만나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대답해주다가도, 밀도 끝도 없는 질문폭격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버럭하고 자리를 피하곤 했죠. 이제 와 돌이켜보면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는 순수한 아이이기에 던질 수 있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의 모든 질문에 답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가 경쟁자인 현대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만 해도 바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잠시 어른의 짐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알지만 광활한 잡지식의 세계,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는 CBS 98.1MHz 라디오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며 매주 평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각종 분야를 요일별로 나누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현대인의 시간은 소중하기에 30분 안팎의 짧은 방송시간(토요일은 1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더 소중한 분을 위해 1분짜리 쇼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YouTube



월요일

<일상의 역사>

타고난 재담꾼, 썸킴 역사스토리텔러의 '썸문답'은 일상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잡지, 복권, 양말, 단추 등 우리 주변의 사소한 물건부터 올림픽, 석유산업, 스파이 등 TV 속 굵직한 사건까지 다양한 역사를 다채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썸킴 특유의 말재간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넥타이는 누가 먼저 매자고 했을까?'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썸킴의 스토리텔링은 일상 속 호기심을 자극하고 역사에 대한 흥미를 끌어냅니다. 특히 미숫가루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30분 내내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썸킴의 모습을 보면 그 입담에 경이로움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흥미를 일으키는 '썸문답'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화요일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한국사>

한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건과 인물로 가득 차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보지 못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사 속의 '지역사'는 우리에게 생소하면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 지역사는 다양한 민속과 전통, 그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박광일 역사작가는 이러한 지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전국 각지의 명칭과 어원이 궁금하거나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이며, 취미로 등산이나 낚시, 캠핑 등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더욱 추천합니다.



수요일

<원소와 과학>

수요일은 언스토퍼블 마우스, '원 플러스 원' 객재식 작가가 원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과학을 '길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화학의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날마다 하나씩 원소를 소개하는데, 각각의 원소가 현대사회를 어떻게 지탱하고 유지하는지를 알게 되면 새삼 과학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객재식 작가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트있고 열정이 담긴 설명을 통해 우리가 원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주어진 방송 시간이 압박해도 '하나만 더'를 외치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사실 녹화할 땐 시간이 초과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런 모습 덕분에 과학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깨뜨리고 긴 시간이 오히려 짧은 것처럼 느껴지게 해줍니다. 평소 첨단소재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는 화학에 뜻이 있었으나 주기율표에 막혀 화포자(화학포기자)가 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요일

<지구 밖의 끝없는 우주 / 지구 안의 끝없는 곤충>

목요일에는 격주 간격으로 유튜버 우주먼지와 곤충 전문가 갈로아 작가가 각자의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튜버 우주먼지는 드넓은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우주 관련 용어를 일상적인 개념으로 비유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갈로아 작가는 곤충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곤충의 생태를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갈로아 작가의 크고 작은 제스처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면 갈로아 작가가 곤충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꼭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와 곤충은 서로 전혀 접점이 없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 스케일이 끝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신비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금요일

<가깝고도 먼 동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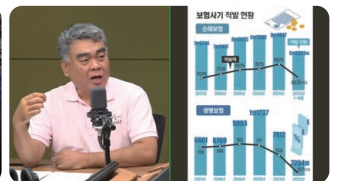
여러분은 동남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중국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왜 한자가 주로 사용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일용 작가의 동남아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던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고 동남아가 어떻게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일용 작가의 설명을 통해 동남아에 대한 시각을 새로이 하고 그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무섭지만, 알아두어야 할 잡지식>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범죄와 관련된 법률, 과학 등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범죄의 구조와 예방방법 등을 상세하게 풀어내며 전청조, 딥페이크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를 통해 끔찍한 관계성 범죄부터 복잡한 금융 범죄까지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종 범죄를 경고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과 고수의 알바에 눈이 가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이강민의 잡지식>는 의학, 공룡, 전시, 클래식, 영화, 요리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흥미로운 영상이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영상이 추가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잡지식을 섭렵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마치며

지금까지 알지만, 광활한 잡지식의 세계를 소개해드렸습니 다만 사실 잡지식이란 말은 한국어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대신 영어사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잡지식과 비슷한 뜻의 Trivia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소한 정보 또는 일반 상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모든 지식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법인데 그 앞에 잡(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겠죠. 우리도 앞으로는 잡지식이라는 말 대신 일반 상식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가벼운 마음으로 <이강민의 잡지식>를 즐기고, 내년 설날 조카들에게 '일반 상식'을 뽐내보는 것은 어떨까요?